논어 8편 태백 6장 · 원문·풀이

曾子曰：「可以託六尺之孤，可以寄百里之命，臨大節而不可奪也。君子人與？君子人也！」

독음 · 증자왈 가이탁륙척지고 가이기백리지명 림대절이불가탈야 군자인여 군자인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어린 임금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고 큰 위기에도 뜻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군자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曾 일찍 증 증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可 옳을 가 가

以 써 이 이 / 託 맡길 탁 탁 / 六 여섯 륙 륙 / 尺 자 척 척

之 갈 지 / 孤 외로울 고 고 / 寄 부칠 기 기 / 百 일백 백 백

里 마을 리 리 / 命 목숨 명 명 / 臨 임할 림 림 / 大 클 대 대

節 마디 절 절 / 而 말이을 이 / 不 아닐 불 / 奪 빼앗을 탈 탈

也 어조사 야 / 君 임금 군 / 人 사람 인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